

## 韓·日 국제환경상 受賞 鄭 用 昇 박사 (한국교원대 교수)

# 산성비 등 환경과학기술개발의 主役

중국의 황사 및 대기오염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업적 등으로 조선일보와 일본 마이니치신문서 제정한 '한·일국제환경상'을 수상한 한국교원대 정용승 교수.

정박사는 “우리의 대기, 물, 토양은 모두 심각하게 오염되어있는 실정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선 국민과 정부·사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 꾸준한 운동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바쁘신 가운데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한·일국제환경상'을 수상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일보와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공동으로 제정한 이 상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수상하시게 된 업적과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학기술은 선진국의 지름길

- 한·일국제환경상(The Asian Environmental Awards)은 조선일보사와 일본 마이니치신문사가 공동주관하여 지구 환경위기의 극복을 위해 노력한 아시아 환경인을 발굴해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상으로 95년에 만들어져 이번이 제3회가 됩니다.

올해는 지난 10월 23일에 동경 프레스센터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저와 일본조류보호연맹 이시가와현 지부 무라모토 요시오 지부장이 함께 수상했습니다.

지난 85년에 과충이 주축이 되어 제1회 국제대기환경학술회의를 창설한 후 지금까지 매 2~3년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5회까지 마쳤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 회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점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존탐사, 산성비, 산성이슬, 산성안개 등에 관한 연구, 인공위성을 이용한 대기오

염 관측, 중국의 대기오염 발생·이동·침전 및 그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을 먼저 시작해 과학적 기초를 다듬은 점도 수상을 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 교수님께서 과거 환경청 신설과 과기처 승격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정부의 환경과 과학에 관한 정책자문에도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 분야 정책 수행능력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 환경청이 환경처를 거쳐 환경부가 되기까지 또 과학기술처가 신설되기까지 많은 관련분야 학자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원없는 나라에서 과학기술 개발은 생존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과학기술은 선진화의 첩경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제는 선진국이나 문화국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본 바탕이 튼튼치 않아 규제 등을 통한 행정위주로 환경이 다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과학기술적 지혜를 바탕으로 환경적 기초와 바탕을 다듬어 나가야 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환경과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중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입니까.

- 대기오염 감소, 온실가스 감소, 수질오염 감소, 농지 및 그린벨트 등의 보호 및 보전이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국토보존문제 특히 그린벨트문제는 정치인과 정부

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지난 4~5년간 훼손이 자주 심각합니다. 높은 인구밀도와 작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보존은 무엇보다도 앞서 고려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농지가 공장터나 택지 등으로 전용되는 등 소위 난장판화되고 있음은 매우 한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토문제와 농지 보존문제 등은 결국은 과학자들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하리라 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범과학계가 모여 특별위원회라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교수님께서서는 우리나라에 내리고 있는 산성비의 원인이 중국의 대기오염 때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하신 바 있으나 현재 이의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중국의 환경오염에 따라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을 다른 위험요인은 없는지요.

-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산성강우가 자주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 이유도 있지만 중국 대기오염의 발생, 이동, 침전 및 그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 중국 대기오염으로 인한 외적 이유가 더 크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피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힘든 실정이며, 자료 수집과 관측, 분석, 평가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양국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중국과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상호협력을 진행중입니다.

■ 다른 나라들의 경우 인접국가간의 환경분쟁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들 나라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유럽 30개국 환경분쟁해결 협력체

- 서부 유럽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의 오염물질의 발생 및 이동, 침전물 피해가 70년도 초부터 스칸디나비아 등 북서유럽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 후 국제간의 큰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연어가 죽고, 고기들이 산란을 하지 않으며 산림에 변화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0년대 후반에는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 동부에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30개국 협력체가 구성되어 문제해결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한 후 90년대 초부터 현실을 인정하고 산성비, 대기오염 등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조사 연구에 양국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도 최근 10여년 사이에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직 현황 파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공해물질의 상호감소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협력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시간이 걸려도 서두르지 말고 꼭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 일반 국민을 비롯해 정부나 학계, 산업계 등에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환경은 언뜻 군더더기 사치로 생각되기 쉬우나 사실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환경보호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7천만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만 이 작은 국토를 덜 훼손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기, 물, 토양은 이제 모두 오염되었습니다.

30~40년 전만 해도 다른 음료수가 필요없을 정도로 수질이 좋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러 산 속이나 오지로 가야할 지경입니다. 물이나 공기 등이 비싼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결국 국민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환경자원은 어느 한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만인의 것입니다. 국민과 정부, 사회 모두가 한 목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선진국, 문화국을 지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⑤7

송해영<본지 객원기자>